

커피향 가득한 7호관의 연구실을 그리며...

글_박승국·숙명여자대학교 수학과



고등과학원을 떠나 숙명여자대학교에 온 지가 벌써 한 달 반이나 지났다. 너무나 다른 분위기의 두 곳. 재작년 8월 처음 고등과학원을 찾아가던 기억이 난다. 무더운 여름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설렘과 기대감으로 오르던, 무척 길게만 느껴졌던 계단과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한산하고 고요한 캠퍼스. 사실 첫 느낌은 삭막하고 차가운 느낌이었다.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이 더운 날씨에 정장을 입고 출근해야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들었다. 힘들게 7호관을 찾아서 들어선 순간 청바지 차림의 박형주 교수님과 반바지 차림의 연구원들 그리고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마침 학회가 있어서 복도는 사람들로 붐비고 토론실에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습과 자유로운 복장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처음 왔을 때 명효철 원장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난다. 원장님께서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자유롭게 하라고 하셨다. 고등과학원은 나에게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더욱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곳이다. 훌륭한 교수님들과 국내외 석학들, 그리고 연구원들이 활발한 학술 교류를 하고 또한 유능하고 친절하신 직원들의 노력으로 정말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곳이다. 중요한 학회가 있으면 아무런 구속 없이 자유롭게 학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 또한 고등과학원의 큰 장점이다. 흥

릉의 한적하고 고요한 분위기와는 달리 숙명여자대학교의 캠퍼스는 또각또각 학생들의 하이힐 소리와 재잘거림으로 늘 활기차고 북적댄다. 숙명여대에서 지낸 한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다. 자유롭던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3개 과목을 준비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서인지 고등과학원에서 연구원들과 점심을 먹고 난 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로를 거닐던 여유로움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이제는 좀 적응도 되고 교수님들과 학생들과도 많이 친해진 것 같다. 여대에서 신경이 더 쓰이는 부분이 있지만 학생들이 착하고 다정다감해서 학교생활이 즐겁다. 얼마 전에는 MT를 갔다.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과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여대만의 독특한 문화를 맛볼 수 있어서 좋았다. 98명의 여대생들의 환호 속에서 노래도 불러보고 웬만하면 부끄럼을 타는 성격이 아닌데 정말 부끄러웠다. 현재 나의 학교 생활은 강의, 교수회의, 학교 행사, 학생들과의 진로 상담에 치중되어 있다. 학기초여서인지 연구를 할 여유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늘 마음이 불안하다. 고등과학원에 있을 때 논문을 좀 더 써 놓을 걸 하는 후회를 하곤 한다. 고등과학원의 가장 큰 장점인 자율성이 어찌면 나를 나태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시간을 잘 쪼개서 최대한 잘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느낀 점은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의 질 뿐만 아니라 복지 및 진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입생들을 위한 임시 책임지도교수제를 운영하여 대학 수업 및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생들을 지도하고 재학생들을 위한 멘토제를 운영하여 학교생활과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상담 등으로 학생들의 개인 역량을 향상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등산 및 문화 탐방 등의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 사이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 사이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고등과학원을 나오더라도 자주 고등과학원에 가려고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 못했다. 내가 바

쁘다고 숙명여자대학교로 찾아와 준 고등과학원 동료들에게 너무나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 고등과학원에 있을 때 연구원들끼리 우리는 이런 교수가 되자고 이야기한 것들이 있다.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글을 마칠까 한다.

끝으로 저에게 소중한 추억을 주신 고등과학원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KIAS](#)